

한국어 어말 종성 발음의 유형적 특성*

김 선 정**

이 연구의 목적은 언어유형론의 한 분야인 음운 유형론의 시각에서 자연언어의 어말 종성의 발음에 나타나는 특성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고, 이를 한국어의 종성 자음 교육 방안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한국어 발음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한국어의 ‘달’을 타이어 화자들의 경우에는 [단]으로 발음하고, 일본어 모어 화자들의 경우에는 [다루]와 같이 발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어 단어 ‘bonus’와 ‘massage’를 한국어에서는 각각 [보너스]와 [마사지]로 발음하는 반면에 타이어에서는 각각 [보넌]과 [마샴]으로 발음한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어교육에서 나타나는 오류나 언어 차용 시 나타나는 어말 음운 조정현상이 음절 구조 차원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절을 이루는 음소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어야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어말 종성 발음과 관련된 선행 연구나 자연언어의 음운 정보를 통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 어느 곳에도 어말 종성의 발음에 관한 항목은 없다. 예를 들어, 자연언어의 특징을 149개의 entry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는 WALS(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에도 자음과 모음을 비롯하여 자음과 모음의 비율, 음절 구조 등에 관한 많은 정보는 제시되어 있으나 자음의 위치별 특징, 특히 종성 발음에 관한 정보는 없다. 또한 세계 451개 언어의 음운 정보

DOI URL: <http://dx.doi.org/10.18399/actako.2020..78.005>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B20160084)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로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주관 ‘2019 한국어문화교육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계명대학교 글로벌한국어문화교육전공 교수

를 제공하고 있는 UPSID(UCLA Phonological Segment Inventory Database)에도 종성 발음에 관한 정보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 나타나는 발음 오류나 언어 차용 시 나타나는 음운 조정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언어의 종성 발음에 관한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언어유형론(Linguistic Typology)을 활용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다수의 한국어 학습자가 모어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의 어말 종성(syllable-final consonants, coda)의 발음을 유형별로 나누고, 이를 활용한 한국어 종성 자음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핵심 단어: 언어유형론, 음운유형론, 어말 종성 발음, 대조 연구, 음절 구조, 한국어 교육

1. 들어가는 말

한류의 확산에 힘입어 한국 정부에서는 세종학당과 한국교육원을 설립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세계에는 180개나 되는 세종학당이 설립되어 있고, 한국어를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의 수적 증가는 한국어교육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On-line, Off-line 등 다양한 유형의 교육 자료와 교수법을 개발하여 학습자 맞춤형의 한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습자 맞춤형의 한국어 교육 방안을 개발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한국어와 학습자 모어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가 극히 다양하여 한국어와 학습자 모어와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방안을 구안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습자가 모어로 사용하는 언어들의 공통점을 파악하여 유형을 분류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언어유형론적 시각에서 언어의 음운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에서 나타나는 음소(분절음), 운소(초분절음), 음절, 음운현상 등을 총망라하여 범언어적(cross-linguistically)으로 그 특징을 살펴야 할 것이다. 자음의 경우에는 조음 위치적(place of articulation) 특징과 조음 방법적(manner of articulation) 특징뿐만 아니라 대립되는 자음의 수와 대립되는 성질, 즉 기(氣, aspiration)의 세기나 유성성(voicing) 등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해당 언어의 음절구조의 특징과 다양한 음운현상을 파악해야 한다. 음절의 경우 초성, 중성, 종성 등 각 위치에 나타나는 자음과 모음의 수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음절의 위치에 따른 특별한 음소 배열제약(phonotactic constraints)이 있는지의 여부 또한 분석의 대상이 된다. 이 글에서는 어말 종성(syllable-final consonants, coda)의 발음에 나타나는 특성을 유형별로 나누고, 이를 한국어 종성 교육 방안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어 발음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한국어의 ‘달’을 타이어 화자들의 경우에는 [단]으로 발음하고, 일본어 모어 화자들의 경우에는 [다루]와 같이 발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어 단어 ‘bonus’와 ‘massage’를 한국어에서는 각각 [보너스]와 [마사지]로 발음하는 반면에 타이어에서는 각각 [보넌]과 [마산]으로 발음한다(허용, 김선정, 2013). 이러한 사실은 한국어교육에서 나타나는 오류나 언어 차용 시 나타나는 음운조정현상이 음절 구조 차원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절을 이루는 음소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어야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어말 종성 발음과 관련된 선행 연구나 자연언어의 음운 정보를 통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 어느 곳에도 어말 종성의 발음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제

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연언어의 특징을 152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는 WALS(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에도 자음과 모음을 비롯하여 자음과 모음의 비율, 음절 구조 등에 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으나 자음의 위치별 특징, 특히 종성 발음에 관한 정보는 없다. 또한 세계 451개 언어의 음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UPSID(UCLA Phonological Segment Inventory Database)에도 종성 발음에 관한 정보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나타나는 발음 오류나 언어 차용시 나타나는 음운조정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한국어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연언어의 종성 발음에 관한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다수의 한국어 학습자가 모어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의 어말 종성(syllable-final consonants, coda)의 발음을 유형별로 나누고, 이를 활용한 한국어 종성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한국어 종성 발음의 특징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성에서는 대부분의 자음이 제 음가대로 소리 나지만 종성에 오는 자음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한국어의 경우 초성에서는 [ŋ]을 제외한 모든 자음이 올 수 있고, 이러한 자음들은 모두 제 음가대로 소리 난다. 이는 중국어나 일본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종성의 경우는 다르다. 한국어에서 종성의 위치에서 표기로 사용할 수 있는 자음은 /ㅌ, ㅍ, ㅊ/를 제외한 16자이다. 그러나 이 자음들은 어말 종성의 위치에서 제 음가대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의 하나로 발음된다.

/ㄴ, ㄹ, ㅇ/은 제 음가대로 발음되지만, /ㄹ/은 [r]이 아닌 [l]로 발음된다. 장애음 중 /ㅂ, ㅍ/는 파열되지 않은 [b], 즉, [p̚]로 발음되고, /ㄷ, ㅌ, ㅅ, ㅆ, ㅈ, ㅊ/는 파열되지 않은 [t], 즉, [t̚]로 발음되고, /ㄱ, ㅋ, ㆁ/는 파열되지 않은 [k], 즉, [k̚]로 발음된다(허용, 김선정, 2006). 이를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중성의 실현 양상

표기상의 자음	발음	예
ㄴ	ㄴ [n]	산, 문
ㄹ	ㄹ [m]	곰, 땀
ㅇ	ㅇ [ŋ]	궁, 방
ㄷ	ㄷ [l]	달, 물
ㅂ, ㅍ	ㅂ [p̚]	입, 잎
ㄷ, ㅌ, ㅅ, ㅆ, ㅈ, ㅊ	ㄷ [t̚]	닫다, 발, 옷, 있다, 낮, 꽃
ㄱ, ㅋ, ㆁ	ㄱ [k̚]	국, 밖, 부엌

이러한 현상을 음절 말 중화(syllable-final neutralisation)라고 하는데 원래 서로 다른 소리들이 특정 환경에서 각각의 특성을 잃고 같은 소리로 발음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말이다. 예를 들어, ‘바’와 ‘파’에서 초성의 ‘ㅂ’과 ‘ㅍ’은 원래의 음가대로 발음되어 서로 다른 소리로 실현되지만, ‘입’과 ‘잎’과 같은 어말에서나 ‘입도’와 ‘잎도’와 같은 자음 앞에서는 ‘ㅂ’과 ‘ㅍ’이 각각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둘 다 파열되지 않은 [b]으로 소리난다.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중화현상은 독일어 등에서 나타나는 어말 무성음화와 함께 중성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음운현상으로 여겨진다.

3. 선행 연구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는 초성에서 발음되는 모든 자음들이 음절 말의 위치에서 제 음가대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m, n, ŋ, l, p, t, k] 중의 하나로 발음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종성 발음은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언어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여러 개의 언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한국어만을 대상으로 삼았거나 한두 개의 언어에 한정하여 접근하였다. 다시 말해, 여러 언어를 대상으로 삼아 종성 발음의 특징을 유형 분류한 후 한국어 종성 발음의 특징을 다른 언어와의 대조를 통해 파악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하겠다.

종성 발음에 대한 관심은 이론언어학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고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물을 산출하였다. 김선정(2003)은 어말 음절구조의 특성을 언어권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한국어 종성 발음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연구로는 중국어(김지혜, 2005)와 일본어(권현주, 2006) 화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가 다양해짐에 따라 베트남어(박시균 외, 2016)나 태국어(분마룻 꺾나파, 2013), 영어(이은정, 2015), 프랑스어(이다연, 2017), 몽골어(Banzragch, 2012), 타이완어(장용용, 2015), 브라질포르투갈어(이효숙, 김영주, 2013), 신할리어(이지훈, 2018), 우즈베크어(장현아, 2018), 독일어(김은진, 2018)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물이 나오는 등 어말 종성 발음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외에도 윤영해(2015)에서는 중국어와 일본어 화자를 대상으로, 윤영해(2016)에서는 중국어와 타이어, 일본어 화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장선미(2015)에서는 일본어와 영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종성 발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요약해 보면 종성 발음의 관점에서 한국어와의 유사성이 높은 언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들이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보다 오류율이 낮다.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과 /밥/을 종성을 탈락 시켜 각각 [구]와 [바] 비슷하게 발음을 하는 학습자가 있는가 하면 종성 뒤에 특정 모음을 추가하여 [구그]와 [바브]처럼 발음하는 학습자가 있다. 중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전자의 오류를 많이 일으키는 데 반해 일본어 모어 화자의 경우 후자의 오류를 많이 생성한다. 그러나 음절구조를 비교해 보면 중국어와 일본어가 별반 다르지 않다. 지금으로써는 정확히 어떠한 요인이 유사한 종성 발음을 가진 두 언어권의 학습자가 서로 확연히 다른 발음 오류를 생성하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4. 음운유형론(Phonological Typology)

Ethnologue(www.ethnologue.com)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7,111개이다. 이 언어들 간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지만 동시에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갖는 공통적인 특징, 통일성이 존재한다. 세계 언어에서 발견되는 풍부한 구조적 다양성을 연구하여 내재되어 있는 통일성을 밝히고자 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가 언어유형론이다(김기혁, 2009). 따라서 언어유형론은 언어의 다양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어떤 특정 언어에 국한하지 않고 범언어적(cross-linguistically)으로 접근하게 된다.

음운론에 기초한 언어유형론은 Trubetzkoy, Jakobson, Martinet, Greenberg 등 아주 일찍부터 시도되었지만 음운유형론은 유형론을 다루

는 저서에서조차 불충분하게 다루어졌거나 아예 제외되어 왔다(Hyman, 2019)다.¹⁾ 이는 유형론 연구자들이 음운론 자체를 다루지 않아 음운론 연구자들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없었기 때문이고, 음운론 연구자들은 실험실에서 기술에 얽매어 도구적(instrumental), 실험적(experimental), 통계적(statistical), 컴퓨터활용적(computational)인 연구방법론을 사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유형론이 현재 범언어적인 형태통사론의 중심에 있다면, 음운론은 기술적이거나 분석적인 시각에서 실험적인 분야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다고 하겠다. 이는 음운론을 유형적으로 접근하였던 아주 초기 학자들의 견해와도 상반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기식성(allophonic aspiration)이 변이음적인데 반해 한국어와 타이어에서는 음소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미 본질적으로 유형적인(inherently typological) 것이다. 유성성(voicing) 역시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음소적이지만 Basaa에서는 /p, t, k/가 어간의 초성에서는 [p, t, k]로 발음되지만 어간 내에서는 상응하는 유성음인 [b, d, g]로 발음된다. 한국어에서 유성성은 변별적인 작용도 못하고 변이음적(non-distinctive or allophonic) 특성도 없다. 한국어에서는 /t/가 모음 사이에 오면 자동적으로 [d]로 발음된다. 이를 통해 이미 음운론의 초기부터 유형적 개념을 도입했음을 알 수 있다.

음운론의 초기 학자인 Trubetzkoy가 음운적 특성을 유형론적으로 접근한 몇 가지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Hyman, 2019).

첫째는 하나의 자음 세트에 있는 분절음의 수이다. 구강 양순파열음은 언어에 따라 양자적(bilateral, /p/ : /b/) 대립이나 다자적(multilateral, /p/ : /p^h/ : /b/) 대립을 이룬다. 이때 다른 분절음들이 평행관계(parallel relationship)를 보이면 전체 체계와의 관계가 비례적(proportional)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양자적 대립일 경우 /t/ : /d/, 다자적 대립일 경우 /t/ : /t^h/ : /d/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l/과 /r/의 대립은 평행적으로 나타

1) Hyman(2019)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유형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Whaley(1996)의 'Introduction to Typology'에서도 음운론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어떠한 대립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고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대립적 분절음의 관계이다. 대립적 분절음은 사적(privative), 점진적(gradual), 등가적(equipollent)일 수 있다. 사적 대립의 경우 하나의 자음이 ‘유표적(mark)’이면, 다른 하나는 무표적이다. 예를 들어, /p/ : /p^h/ 대립은 /p^h/는 기식성을 가지고 있고, /p/는 기식성이 없다. 점진적 대립은 /i, e, ε, æ/과 같은 모음의 높이 대립에서 나타난다. 등가적 대립은 분절음이 ‘논리적으로 같음’(logically equivalent)에 기반을 둔다. 예를 들어, 양순음인 /p/와 치조음인 /t/는 조음자의 위치는 다르지만 논리적으로 동일하다.

셋째, 대립의 범위이다. 대립이 모든 음운 환경에서 실현되는 경우가 있고, 환경에 따라 그 대립이 중화되는 경우가 있다. 독일어의 어말 무성음화가 이에 해당하는데, /rat/ ‘충고’와 /rad/ ‘바퀴’는 어말에서 모두 [rat]로 실현된다.

위에 제시한 Trubetzkoy의 접근방법을 통해 초기의 음운론 연구자들이 유형론에 의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언어는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어떠한 경향성을 띠고 나타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Hyman(2019)은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경향성에 관심을 갖고 유형론에 관한 속성 중심 접근법(properties-based approach to typology)을 주장하며, 음운론은 항상 기본적으로 유형론과 관련되어 왔고,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유형론과 관련하여 남아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Maddieson(2019)은 속성 역시 범주(category)의 하나로 보고, 음성학에서 수립된 익숙한 범주들이 인간이 고안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하다거나 모든 언어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음운유형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범주 없이 언어를 비교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다는 말로 음성학에서 사용하는 음성 범주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Hyman의 주장대로 속성을 바탕으로 하든, Maddieson의 주장대로 범주를 바탕으로 하든 음운론과 유형론은 불가분의 관계임에 틀림없다.

Maddieson(1980, 2020)은 UPSID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자연언어의 음운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특히 자연언어 자음 체계의 전반적인 모습과 함께 파열음, 마찰음, 비음, 유음 등 각각의 조음 방법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특정 언어의 자음 체계와 그 구성에 대해 객관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에 따르면, 예를 들어, 어느 언어가 마찰음에서 유성성의 대립이 나타나면, 이 언어는 파열음에서도 유성성의 대립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Maddieson, 2010).²⁾

또한 WALS가 Haspelmath, Dryer, Gil & Comrie(2005)와 온라인을 통해 자연언어에서의 자음과 모음 목록의 크기를 비롯하여 음성·음운에 관한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한 사항들을 제시하여 특정 언어의 특성을 타 언어들과 비교하여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특별히 Maddieson은 WALS에 제시된 152개의 엔트리 중 음운론에 관한 엔트리는 19개에 불과한데 이중 13개의 엔트리를 집필하여 인간 언어의 음운에 나타난 유형적 특징을 개괄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두 자료에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어말 종성의 발음에 관한 정보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언어유형론적 시각에서 종성에 접근한 연구로는 VanDam(2004)이 거의 유일하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Ruhlen(1987)의 분류 기준에 따라 18개의 언어를 택하여 자연언어에서 허용하는 단어의 마지막 음절의 종성의 수와 그 종류(the number and kind of word final coda types)에 대해 다루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종성의 위치는 초성의 위치보다 더 적은 수의 분절음을 허용하는데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전혀 자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CV 구조 언어이

2) 또한 음운유형론은 언어에 존재하는 자음의 수를 유형으로 분류해 보기도 하고, 아울러 평균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유형화해 보기도 한다. 인간언어의 평균 자음 수는 23개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략 32%의 언어가 19개에서 25개의 자음(즉, 평균 ± 3)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자음 수가 많으면 근본적으로 더 복잡하고 자음 수가 적은 언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자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 또한 종성에서 자음을 허용하더라도 허용하는 자음의 내적 구조(internal structure of consonants)를 음운적으로 살펴보면 위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조음 방법의 기준에서 보면 ‘비음 > 유음 > 장애음 > 반자음’의 순으로 종성의 자리에 나타나는 자음이 많고, 조음 위치의 기준에서 보면 ‘치조음 > 연구개음, 양순음 > 권설음(retroflex)과 전단음(tap)’ 순으로 많다.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좀 더 상세히 논하기로 한다.

5. 음절구조와 종성 발음의 유형

5.1 음절구조의 유형

음절(syllable)이란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도록 묶여 있는 자음과 모음의 결합체를 일컫는다(허용, 김선정, 2013). 음절을 이루는 방식은 언어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성-중성-종성’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음운론에서는 ‘두음(onset)-음절핵(nucleus)-말음(coda)’이라 부른다. 음절구조에서 두음은 모음 앞에서 발음되는 자음이며, 음절핵은 모음이고, 말음은 모음 뒤에서 발음되는 자음이다. 일반적으로 두음과 말음은 선택적이어서 없어도 되지만, 음절핵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³⁾ 초성의 경우 한국어와 일본어, 중국어에서는 하나의 자음만 가능하지만, 언어에 따라서는 자음군(consonant cluster)을 허용하기도 한다. 영어, 프랑스어,

3) 베트남어에서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의 경우, 자음 자리에 성문음인 [ʔ]을 넣어 자음과 모음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ăn* ‘숨은’, *ăn* ‘먹다’는 철자상으로는 모음으로 시작하지만 첫음 자리에 [ʔ]을 넣어 발음함으로써 초성을 필수적인 것으로 본다.

네덜란드어, 스페인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뒤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자음군의 선행 자음과 후행 자음 사이에는 엄격한 제약이 있다.

말음의 유무는 음절구조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성이 불가능한 언어가 있고, 하나의 자음만 허용하는 언어가 있다. 하나의 자음을 경우에도 모든 자음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자음만 오는 경우가 많다. 비음만 허용하는 중국어와 같은 언어도 있으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비음과 함께 파열되지 않은 소수의 장애음만 허용하는 한국어, 베트남어와 같은 언어도 있다. 이와는 달리 영어와 같이 모든 자음이 가능한 언어도 있다. 또한 영어나 프랑스어와 같이 자음군을 허용하는 언어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자음들 사이에 제약이 존재한다.

언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음절구조는 두음과 말음에서의 자음의 수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자연언어에 나타나는 음절구조의 유형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Maddieson, 2020).

첫째, 단순형 음절구조(simple syllable structure) 유형이다. CV 구조가 여기에 속하는데, 자음 하나와 그 뒤에 모음이 오는 구조이다. 모든 언어는 이 구조를 갖지만, 오직 이 음절구조만 가능한 언어도 존재한다. 이에 속하는 언어로는 하와이어, 스와힐리어, 요루바어(Yoruba) 등이 있다.⁴⁾

둘째, 중간형 음절구조(moderately complex syllable structure) 유형이다. 이 구조는 단순형의 두음 또는 말음에 하나의 자음을 더한, CCV 또는 CVC 구조이다. CCV는 두음에는 자음군을 허용하지만 말음은 허용하지 않는 구조이며, CVC는 모음을 중심으로 앞뒤에 각각 하나의 자음만을 허용하는 언어이다. 한국어는 후자에 속한다. CCV의 두음 자음군 CC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매우 엄격한 제약이 있어, 두 번째 자음은 유음이나 활음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CVC 구조의 말음 또한 제약이 존재할 수 있어 언어에 따라서는 이 위치에 특정 자음들만 허용하기도 한다. 자연언어

4) WALSH의하면,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많은 언어 중에는 단순형 음절구조를 가지고 있는 언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에는 중간형 음절구조 유형에 속하는 언어가 가장 많다.⁵⁾

셋째, 복잡형 음절구조(complex syllable structure) 유형이다. 이 유형의 음절구조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많은 언어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두음의 자음군이 아무런 제약을 갖지 않는 경우와, 영어와 같이 말음에 세 개 이상의 자음이 오는 구조이다. 영어의 음절구조는 (C₃)V(C₄)로 두음에는 최대 세 개의 자음(예, strike[straɪk])이, 말음에는 최대 네 개의 자음(예, prompts[prɒmpts])이 올 수 있다. 하지만 ‘strengths [streŋkθs]’에서와 같이 한 단어에 초성에서 3개의 자음과 종성에서 4개의 자음이 발견되는 예는 극히 드물다(Maddieson, 2020). 슬로바키아어에서는 /zmrzlna/ ‘얼음’, /krb/ ‘난로’에서와 같이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자음 결합이 가능하다(Körtvélyessy, 2017). 이 유형에 속하는 언어는 31.1%(151/486)이다.⁶⁾

이 세 가지 유형은 다음 표와 같이 자음목록의 크기와 어느 정도의 관련을 맺는데 자음목록의 수가 적을수록 단순형 음절구조 유형이 많고, 많을수록 복잡형 음절구조 유형이 많다.

〈표 2〉 음절구조 유형에 따른 평균 자음 수(Maddieson, 2020)

음절구조 유형	평균 자음 수	해당 언어 수
단순형 음절구조	19.1	61/481 (12.5%)
중간형 음절구조	22	274/481 (56.4%)
복잡형 음절구조	25.8	151/481 (31.1%)

모든 언어는 자음 하나와 모음 하나로 된 음절을 가지고 있는데 언어에

5) WALs의하면,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많은 언어 중에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타이어, 베트남어, 터키어, 미얀마어가 중간형의 음절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6) WALs의하면,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많은 언어 중에는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우즈베크어, 크메르어가 중간형의 음절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CV가 가장 복잡한 음절구조인 언어도 있다. 피지어(Fijian), 밤바라어(Bambara), 과라니어(Guarani)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언어의 음절구조는 (C)V로 표현될 수 있다. 대부분의 초성은 ‘장애음 + 유음 또는 반자음’이 일반적이다. 자음군이 가능하더라도 두 개 이상은 드문 편이다. 이는 종성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언어는 종성에서 하나의 자음은 허용하는데 더 복잡한 유형은 이보다 더 단순한 유형의 음절이 가능할 때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종성에서 세 개의 자음군은 한 개나 두 개의 자음이 허용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영어나 조지아어(Georgian)와 같이 초성과 종성 모두에 자음 연쇄(strings of consonants)를 가지고 있는 언어는 드물다.

또한 음절의 어느 부분이 필수적인가 하는지도 음운유형론의 주된 관심사이다. 몇몇 언어에서는 초성 자음이 필수적인 언어가 있다. 베트남어나 크메르어 같은 언어가 그 예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절의 핵은 모음이지만 몇몇 언어에서는 성절자음(syllabic consonants)을 허용하기도 한다. 요루바어에서는 성절 비음이 있고, 영어에서는 ‘bottom, cotton, little, kettle’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비음과 유음이 성절음이 된다. 체코어에서는 /vlk/ ‘늑대’, /krk/ ‘목’에서와 같이 유음이 성절성을 갖고 있다(Maddieson, 2010).

5.2 종성의 유형

5.2.1 음절구조 차원에서 본 종성의 유형

어느 언어도 개음절이 불가능한 언어가 없고, 어느 언어도 폐음절을 요구하는 언어도 없기 때문에 언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즉, 종성을 허용하는 언어와 그렇지 않은 언어로 나뉜다. 하와이어나 스와힐리어(Swahili), 쇼나(Shona), 요루바(Yoruba)는 종성이 불가능한 언어이다. 그

러나 종성을 허용하는 언어는 개별 언어가 허용하는 종성의 최대 수에 따라 또 다시 분류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종성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출현하는 자음의 수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의 언어로 알려져 있는 어느 언어도 종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종성의 최소수는 영(zero)이다.

어느 언어에서든 허용하는 종성의 최대 수보다 적은 수의 종성은 가능하다.⁷⁾ 예를 들어, 어느 언어가 최대로 허용하는 자음 수가 네 개라면, 세 개, 두 개, 한 개의 자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종성에는 일반적으로 자음이 하나만 올 수 있는 언어에서부터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올 수 있는 언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허용, 김선정, 2013).⁸⁾ 자연언어는 종성에서 둘 이상의 자음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자음군을 허용하지 않고, 특정한 몇몇 자음만을 허용한다. 다시 말해, 모든 논리적으로 가능한 결합이 실제로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tent, camp, pink’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nt, mp, nk’는 가능하더라도 역순 결합인 ‘tn, pm, kp’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어느 언어에서든지 홀자음으로 허용되는 종성이 자음군(multiple-member coda)보다 많다(VanDam, 2004). 이는 어느 한 언어에서 논리적으로 가능한 분절음의 수가 증가하여도 실제로 나타나는 자음군의 수는 비율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성의 복잡성으로 인해 논리적으로 가능한 자음군이 증가하여도 실제로 나타나는 종성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VanDam(2004)이 18개의 언어를 대상으로 분류한 최대 종성 수는 다음과 같다.

7) If clusters of n Cs are possible syllable-finally, then clusters of $n-1$ Cs are also possible finally(Blevins, 1995).

8) 18개의 언어를 분석하여 종성 발음의 유형론을 연구한 VanDam(2004)은 종성에서 가능한 자음의 수에 상한선(upper limit)이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조지아어(Georgian)에서 최대 여섯 개가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가 분석한 언어에는 종성에서 가능한 자음 수가 네 개, 다섯 개인 언어는 없었다고 하였다.

〈표 3〉 종성의 최댓값

종성 수	최대 종성 수	언어 수	백분율(n=18)
VC	1	13	72
VCC	2	2	11
VCCC	3	2	11
VCCCCC	6	1	6

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종성에서 가능한 자음 수의 범위가 꽤 넓다고 해도 분명한 점은 종성이 많은 수보다는 적은 수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18개의 언어 중 72%에 해당하는 13개의 언어가 종성에서 하나의 자음만을 허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언어의 종성에서 허용하는 최대 자음 수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종성의 최대 자음 수

종성 수	특 징
0개(불가)	하와이어, 쇼나, 스와힐리어
1개 가능	한국어, 타이어, 베트남어
2개 가능	터키어 ⁹⁾
3개 가능	인도네시아어
4개 가능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폴란드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느 언어에서든지 홀자음으로 허용되는 종성이 자음군보다 많다. 이는 종성에 자음이 두 개 이상 올 경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영어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어말에 두 개의 자음이 오는 경우에는 아래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앞 자음의 공명도가 뒤 자음의 공명도보다 커야 하는 제약이 있다.

9) 고유어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초성과 종성에 각각 하나의 자음만을 가질 수 있는 (C)V(C) 구조이다.

〈표 5〉 영어의 어말 자음군(C₁C₂)

어말 자음군	C ₁	C ₂	예			
	[l]	장애음, 비음	help	silk	belt	film
자음+ 자음(C ₁ C ₂)	비음	장애음	tent	pink	camp	bench
			lens	sense	change	
	장애음	장애음	left, adopt, list, fox, act			

어말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오는 경우, 앞 자음이 유음이면 뒤 자음이 장애음이나 비음이다. 따라서 ‘lp, lk, lt, lm’과 같은 자음군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앞 자음이 비음인 경우에는 ‘nt, nk, mp, nŋ, nz, ns, ndʒ’와 같이 장애음만이 뒤 자음의 위치에 올 수 있다. 앞 자음이 장애음인 경우에는 뒤 자음도 장애음밖에 올 수 없다. 이를 통해 어말 종성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자음 간에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지금까지 종성 자리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수와 두 개 이상 허용할 경우의 음소배열제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종성의 자리에 하나의 자음만이 가능한 경우 어떤 종류의 자음이 가능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5.2.2 음소 차원에서 본 종성의 유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성에서는 대부분의 자음이 제 음가대로 소리 나지만 종성에 오는 자음에는 다양한 제약이 나타난다. 초성의 경우에는 많은 언어에서 대부분의 자음이 제 음가대로 발음되지만 종성의 경우는 다르다.

VanDam(2004)에 따르면, 종성에서 하나의 자음을 허용하는 모든 언어는 치조비음인 /n/을 허용한다. 호주의 북쪽 지방에서 사용하는 언어인

10) 영어의 세 개의 자음(C₁C₂C₃)이 오는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음소배열제약이 존재한다. C₁이 비음인 경우 C₂와 C₃에는 마찰음과 파열음이 올 수 있다(예; against, prompt, distinct). 그러나 C₁이 파열음인 경우에는 C₂는 마찰음, C₃는 파열음이 와야 한다(예; text, midst).

Waljbiri의 경우에는 어말 종성에서 /n/만을 허용한다. 따라서 어느 자연 언어가 종성의 위치에 딱 하나의 자음만을 허용한다면 이는 /n/라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어느 언어가 /n/을 허용한 다음에는 /m/, /ɲ/, 또는 /ŋ/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n/을 허용하지 않고는 /m/, /ɲ/, 또는 /ŋ/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n/은 /m/, /ɲ/, 또는 /ŋ/을 허용한 후에야 허용이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비음의 출현은 $n > /m/, /ɲ/, /ŋ/ > n$ 과 같이 위계화된다.

비음 다음에 허용되는 음소는 유음이고, 그 다음은 장애음이다(VanDam, 2004). 유음의 경우에는 한국어에서와 같이 /l/이 /r/보다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음의 경우에는 $t > k$, $p > s$, z , c , q , $ʃ > b$, d , g , x , h 순으로 허용된다. 이 때 자음 하나하나의 순서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경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파열음이 마찰음보다 허용되는 경우가 많고, 무성음이 유성음보다 많이 나타나고, 치조음이 연구개음이나 양순음보다 많이 허용된다. 또 한 가지는 반자음 /w/와 /y/는 장애음이 허용된 후에 가능하다는 것이다(VanDam, 2004).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조음 방법의 기준에서 보면 종성의 자리에 나타나는 자음은 ‘비음 > 유음 > 장애음 > 반자음’의 순으로 많다.

일본어와 중국어를 살펴보면, 종성에서 비음이 가장 흔히 나타난다는 VanDam(2004)의 주장이 합당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일본어의 경우에는 ん으로 표기하는 비음 N(발음, 撥音)과 っ로 표기하는 장애음 Q(촉음, 促音)만이 종성에 올 수 있다. 이 두 특수음소 중 っ는 ん과는 달리 자음이 후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어말에는 올 수 없다. 따라서 일본어에서는 ‘いっぱい(一杯) [ippai], 一点点(一点) [itten], 一回(一回) [ikkai]’에서와 같이 장애음의 경우에는 두 자음이 동일한 중복자음(germinate)으로 실현될 때에만 가능하다. 이와는 달리 비음은 ‘かん(刊), まん(万), たん(短)’에서와 같이 어말의 종성에 올 수 있다.

중국어 역시 종성(좀 더 정확히는 운모를 이루는 운미)의 자리에 [n]과

[ŋ]만이 올 수 있다. 중국어의 安[an], 弯[wān], 根[gēn], 天[tiān], 江[jiāng], 王[wáng]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어와 중국어의 종성의 분포는 VanDam(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느 언어의 종성에서 자음 방법상 하나의 자음만이 나타날 경우 그 자음이 비음이라는 것인데 일본어와 중국어의 경우에도 종성에서 가능한 자음이 비음뿐이다.

이와는 달리 독일어나 네덜란드어, 우즈베크어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장애음이 가능하다. 이들 언어에서는 아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비음이나 유음 등의 공명음뿐만 아니라 장애음도 발음된다. 이때 유성음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무성음으로 발음된다(Schane, 1973). 초성에서나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존재하던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이 사라지고, 어말에서는 모두 무성음으로 발음된다.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독일어의 예를 보자.

〈표 6〉 독일어의 어말 종성 발음

단어(단수)	발음	단어(복수)	발음
Bund (연합)	[bunt]	Bünde	[bündə]
Wald (숲)	[walt]	Wälder	[wäldər]
Tag (날)	[tāk]	Tage	[tāgə]
Hund (개)	[hunt]	Hunde	[hundə]

위의 표에서 왼쪽의 단어들이 단수이고, 오른쪽의 단어들이 복수이다. 그런데 왼쪽 단어들에서는 어말 자음이 무성음으로 발음되고, 오른쪽 단어들에서는 유성음으로 발음된다. 이것은 원래 유성음이던 자음이 어말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무성음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VanDam(2004)의 연구 결과를 독일어나 네덜란드어의 종성 발음에 적용해 보면 비음, 유음, 장애음, 반자음 등 조음 방법상 모든 자음이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장애음이 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애음 중 무성음은 허용이

되지만 유성음은 불가능하다. 영어에서는 ‘rat와 rad’, ‘hat와 had’, ‘cap와 cab’의 각 쌍이 달리 발음된다. 하지만 독일어에서는 어말 종성의 자리에서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이 사라져 무성음으로 중화되므로 ‘rat와 rad’, ‘hat와 had’, ‘cap와 cab’의 발음이 같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장애음을 유성음과 무성음이 모두 가능한 언어와 무성음만이 가능한 언어로 유형을 분류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anDam(2004)와는 달리 어말 종성에서 가능한 장애음을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종성의 제약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훨씬 더 다양하다. 타이어의 경우에는 어말 종성에서 반자음 [y]와 [w]을 포함하면 [m, n, ɲ, p, t, k, j, w] 8개의 자음이 소리 난다. 즉, 비음과 장애음 중 파열음만이 올 수 있다. 베트남어의 경우도 반자음 [y]와 [w]를 포함하면 [m, n, ɲ, p, t, k, ɲ, c, y, w] 10개의 자음이 발음된다(도옥루이엔, 2015).¹¹⁾ 즉, 유음은 불가능하나 비음과 파열음이 올 수 있다. 타이어와 베트남어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종성 발음 제약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어말의 종성이 불파(unreleasing)되는 현상 때문이다. 이 두 언어에서 불파된 장애음만이 어말 종성의 위치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위의 어말무성음화의 경우처럼 불파된 장애음이 자연부류(natural class)를 형성함을 보여 주므로 VanDam(2004)가 어말 종성에서 허용되는 자음을 비음, 유음, 장애음으로만 분류한 것은 지나치게 일반화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베트남어와 타이어의 경우를 VanDam(2004)의 연구 결과에 적용해 보면 어말 종성에서 비음, 장애음, 반자음은 가능하나 유음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특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음은 불가능하고 비음, 장애음, 반자음을 허용하는 언어는 일반적인 유형적 특성을 준수하지 않는 언어 그룹이다.

11) 베트남어의 경우 còn ‘알쿨’, chim ‘새’, Hàn Quốc ‘한국’과 같이 종성(끝음)의 위치에 비음이나 장애음이 오기도 하지만 mới ‘새로운’, nói ‘말하다’ 또는 rượu ‘술’과 같이 반자음이 오기도 한다.

다음은 인도네시아어와 영어의 경우를 살펴보자. 인도네시아어에서는 비음과 유음뿐만 아니라 장애음도 가능하다. 장애음의 경우에는 독일어나 네덜란드어와 마찬가지로 무성 장애음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ɲ, ʃ, c, ʝ, y]와 같은 경구개음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영어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언어들과는 달리 초성에서 사용되는 자음이 종성에서도 같은 음가로 발음된다(허용, 김선정, 2013). 비음이나 유음은 물론 장애음이 제 음가대로 소리 난다. 이는 ‘cam, can, sing, tall, cat, pad, pop, cab, cook, gag, bus, cheese, college, bush, beach’와 같은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buy, say, cow’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반자음도 가능하다. 어말 종성에서 장애음이 제 음가대로 발음된다는 말은 타이어나 베트남어와는 달리 폐로부터 방출되는 공기의 파열이 이 위치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결국 영어는 VanDam(2004)의 연구에서 언급한 비음, 유음, 장애음, 반자음이 모두 가능한 언어 유형이라고 하겠다.

끝으로 한국어의 경우를 살펴보자.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경우, 초성에서 발음되는 모든 자음들이 음절 말의 위치에서 제 음가대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m, n, ŋ, l, p, t, k] 중의 하나로 발음된다. /ㄴ, ㄹ, ㅇ/은 제 음가대로 발음되지만, /ㄹ/은 [r]이 아닌 [l]로 발음되고,¹²⁾ /ㅂ, ㅍ/는 파열되지 않은 [p]로 발음되고, /ㅅ, ㅆ, ㅈ, ㅊ, ㅌ/는 파열되지 않은 [t]로 발음되며, /ㄱ, ㅋ, ㆁ/는 파열되지 않은 [k]로 발음된다. 한국어의 어말 종성의 발음을 볼 때, 장애음의 경우는 타이어나 베트남어와 유사한 반면에 유음 /ㄹ/은 다름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유음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두 언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VanDam(2004)의 연구에서 언급한 비음, 유음, 장애음 순으로 나타나고, 반자음만

12) VanDam(2004)에 의하면, 유음의 경우 종성의 위치에서 ‘r’보다는 ‘l’이 더 흔히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종성에서 ‘ㄹ’이 [l]로 발음되는 한국어의 경우도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불가능한 것이다. 다만, 모든 장애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과열되지 않은 장애음만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자연언어의 어말 중성 발음의 유형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이 크게는 네 개, 작게는 여섯 개로 분류된다.¹³⁾

〈표 7〉 어말 중성이 하나인 경우의 유형

유형	하위 유형	가능한 자음	언어
유형 1(비음)	1	비음	중국어, 일본어
유형 2(비음+ 유음)	2	비음, 유음	카누리
유형 3 (비음+ (유음)+ 일부 장애음)	3-1	비음, 유음, 무성장애음	독일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3-2	비음, 유음, 불과된 장애음	한국어, 타이완어
	3-3	비음과 불과된 장애음	타이어, 베트남어, 라오어
유형 4 (모든 자음)	4	모든 자음	영어

6. 나오는 말

지금까지 한국어 발음 교육에 관한 연구는 학습자 모어의 특성을 파악하여 한국어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발음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가 극히 다양해진 데다가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언어에 나타나는 중성 발음의 특성을 몇 가지로 유형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중성 발음 교육 방안을 제시할 경우 중성 발음을 유형 분류하여 유형별 교

13) 본 연구의 목적이 언어유형론은 활용하여 한국어의 중성 발음을 교육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으므로 중성이 하나일 경우의 유형을 분류할 때 한국어의 중성에서는 불가능한 반자음은 제외한다.

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래야만 한국어 종성 발음 교육 방안을 단순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종성 발음은 크게는 네 가지 유형으로, 작게는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유형 1은 비음만 가능한 유형이고, 유형 2는 비음과 유음이 가능한 유형이다. 유형 3은 장애음이 가능한 유형인데 다시 세 가지의 하위 유형으로 나뉜다. 3-1 유형은 비음과 유음, 무성장애음이 가능한 유형이고, 3-2 유형은 비음과 유음, 불파된 장애음이 가능한 유형이고, 마지막 3-3 유형은 유음은 불가능하고 비음과 불파된 장애음만이 가능한 유형이다. 마지막 4유형은 초성과 같이 종성에서도 해당 언어에서 가능한 대부분의 자음, 즉, 비음과 유음, 장애음 할 것 없이 모두 가능한 유형이다.

종성의 특징을 유형별로 나누어 한국어의 종성 발음을 교육하는 방안을 간략히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모어가 열린음절 언어인지 종성에 자음을 허용하는 닫힌음절 언어인지 파악한 후 그 특징에 맞게 교육한다.

한국어는 종성에서 하나의 자음만 발음되기 때문에 열린음절 언어를 사용하는 학습자들을 제외하고는 음절구조로 인한 발음상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종성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을 허용하는 언어는 하나도 허용하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모어가 열린음절 언어인 경우에는 종성이 없는 음절부터 연습 시킨 후 종성이 있는 자음을 연습 시킨다. 이 때 ‘강, 간, 감’과 같이 종성에 비음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활용하여 연습시킨다. 이는 비음의 경우 음운변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학습자의 모어에서 어말 종성을 허용할 경우, 그 유형을 파악하여 유형의 특징에 맞게 한국어의 종성을 교육한다.

한국어의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모어가 유형 1인 경우에는 비음은 존재하므로 비음 /ㄴ, ㅁ, ㅇ/의 구별을 연습시킨다. 그런 다음 유음과 장애음 순으로 연습 시킨다. 유음을 교육할 때에는 한국어의 종성 유음이 [r]이 아니라 [l]임

에 주의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장애음을 연습시키는데 이 때 장애음이 과열되지 않음을 강조하여 교육한다. 유형 2의 경우에는 비음을 연습시킨 후 유음을 연습시킨다. 장애음의 경우 과열되지 않음을 강조하여 교육한다. 유형 3-1의 경우에는 비음과 유음을 연습시킨 후 장애음을 연습시키는데 장애음의 경우 모어에 있는 무성음화로 인해 한국어의 어말 종성 장애음을 강하게 과열하여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3-2 유형의 경우에는 종성 발음이 한국어와 동일하므로 해당 단어를 따라 읽는 정도로 간단히 넘어간다. 유형 3-3의 경우에는 비음과 장애음은 동일하나 유음이 불가능한 유형이므로 ‘달’, ‘말’ 등의 단어를 활용하여 유음을 연습시키는데 주의를 기울인다. 마지막으로 유형 4의 경우 모든 자음이 종성에서 제음가대로 소리 나므로 특별히 발음하지 못하는 자음은 없겠지만 장애음의 경우 과열하지 않고 발음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지도한다.

한국어의 종성 발음을 교육한 후에 그 효과성을 분석하면, 외국어교육에서 발음 습득과 관련하여 팽팽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대조분석가설(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과 음성습득모형(Speech Learning Model, SLM) 중 어느 가설이 한국어 종성 발음의 습득 양상을 설명하는데 더 적절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¹⁴⁾ 학습자 언어와 학습 대상 언어 간의 유사성이 높으면 학습이 용이한지, 유사성이 높으면 인지가 어려워 학습이 어려운지 파악해 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14) 대조분석 가설은 학습자의 모어와 목표어 간의 차이점이 많으면 학습에 간섭을 일으켜 학습이 더디고, 유사성이 많으면 학습이 수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음성습득 모형 가설은 학습자의 모어와 목표어 간의 유사성이 높으면 학습자가 학습대상 음을 인지하기가 어려워 학습이 더디고, 차이점이 많아 학습이 용이하다고 주장한다(Flege, 1987). 결국 두 가설은 학습자 언어와 학습 대상 언어를 대조하여 학습의 결과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학습 결과를 예측하는 데는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권현주, 특수음소의 변이음을 활용한 한국어 종성 발음 인지 교육 방안 - 일본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31, 2006, 35-54.
- 김기혁, 언어유형론-형태론과 통사론- (원저: *Linguistic Typology: Morphology and Syntax*, J. J. Song (2001), Pearson Education Limited), 서울: 보고사, 2009.
- 김선정, 어말 음절구조의 특성과 한국어 교육적 접근, 언어과학연구, 24, 언어과학회, 2003, 23-40.
- 김은진, 독일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자음 발음 특성 연구 -장애음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김지혜,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종성발음 교육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도 옥 루이엔, 베트남 남부 방언을 쓰는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수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박시균·최지은·오종철, 베트남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유음 산출에 대한 음성학적 연구, 인문언어, 18, 국제언어인문학회, 2016, 245-262.
- 분마렛 깐나파,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종성 발음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윤영해, 영역말 빈 핵의 승인제약에 따른 한국어 종성 분석 -중국인, 일본인 학습자들의 중간언어 종성 발음을 중심으로, 언어와 언어학, 66,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2015, 249-274.
- 윤영해,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보편성 연구 -중국어, 태국어, 일본어 화자의 종성 발음의 양상을 중심으로, 언어와 언어학, 72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2016, 153-171.

- 이다연, 프랑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중성발음 교육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이은정,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받침 발음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이지훈, 음운·음성 대조를 통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 한국어와 신할리어의 자음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이효숙·김영주, 브라질인 학습자의 한국어 중성 비음 발음 연구, 한국어학, 61, 한국어학회, 2013, 261-281.
- 장선미, 한국어 학습자의 중성 발음 분석 및 교육 방안 연구- 영어권과 일본어권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장용용, 대만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중성 발음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장현아, 우즈베키스탄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특성 연구 -자음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
- 허용·김선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발음교육론, 박이정, 2006.
- _____, 대조언어학, 소통, 2013.
- Banzragch Oyungerel, 몽골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연구: 초성, 중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Blevins, J. (1995). The Syllable in Phonological Theory, In J. Goldsmith (ed.), *The Handbook of Phonology* (pp. 206-244). Cambridge, MA: Blackwell.
- Flege, J. E. (1987). The production of “new” and “similar” phones in a foreign language: evidence for the effect of equivalence classification, *Journal of Phonetics* 15, 47-65.
- Haspelmath, M., M. S Dryer, D. Gil & B. Comrie (2005).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yman, L. M. (2019). What is phonological typology? In Hyman, L. M. & Plank, F. (Ed.) *Phonological Typology* (pp. 1-20), Berlin: Walter de Gruyter.
- Körtvélyessy, L. (2017). *Essentials of Language Typology*, Pavol Jozef Šafárik University in Košice Press.
- Maddieson, I. (1980). Phonological Generalizations from the UCLA Phonological Segment Inventory Database, *UCLA Working Papers in Phonetics* 50, 57-68.
- Maddieson, I. (2010). Typology of Phonological Systems. In J. J. Song (Ed.)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Typology* (pp. 534-54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ddieson, I. (2019). *Is phonological typology possible without (universal) categories?* In Hyman, L. M. & Plank, F. (Ed.) *Phonological Typology* (pp. 107-125), Berlin: Walter de Gruyter.
- Maddieson, I. (2020). Syllable Structure, *WALS*(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http://wals.info/chapter/12>.
- Ruhlen, M. (1987). *A Guide to the World's Languages 1: Classification*, London: Edward Arnold.
- Schane, S. (1973). *Generative Phonology*. New Jersey: Prentice-Hall.
- VanDam, M. (2004). Word Final Coda Typology, *Journal of Universal Language* 5, 119-148.
- Whaley, L. J. (1996). *Introduction to Typology: The Unity and Diversity of Language*, Newbury Park,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A Study on the Linguistic Typ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Word-Final Codas

Kim Seon Jung(Keimyung University)

Key words: linguistic typology, phonological typology, word-final coda, contrastive research, syllable structu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language-specific characteristics of syllable-final consonants pronunciation, and to find a way to make use of them when teaching Korean pronunciation. In English, final obstruents in words such as ‘cook [kuk], cat [kæt], pop [pʌp], bus [bʌs], cheese [tʃi:z], massage [mæsʌʒ], beach [bi:tʃ], chief [tʃi:f], cave [keiv]’, etc. are pronounced according to their phonetic values. However, in German, final obstruents are not pronounced according to their phonetic values, but rather as their voiceless counterparts, as can be seen in ‘Wald’ and ‘Hund’ pronounced as [valt] and [hunt] respectively. This syllable-final devoicing process also takes place in Dutch, Uzbek, and several other languages. On the contrary, in Korean, the pronunciation of ‘입’ and ‘잎’ is identical, and so is the pronunciation of ‘낮’, ‘낫’, and ‘낏’. In other words, in Korean, the distinction of plain and aspirated is neutralised, and the distinction of fricative and affricates is lost. This is caused by the unreleasing phenomena, which is also found in Thai and Vietnamese. Yet, in the case of Vietnamese and Thai, in contrary to Korean, the syllable-final liquids are not pronounced. On the other hand, we know well than in Mandarin Chinese only

‘n’ and ‘ŋ’ can be pronounced in that position, whereas in Japanese only ‘n’ and ‘m’ are pronounced, unless one of the consonants sharing the same place of articulation is followed in the initial position of the following syllable. Such characteristics cause a negative transfer on their Korean pronunciation when learning the language, with each of the pronunciations displaying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learner’s mother tongue. For instance, English, German, and Uzbek speakers pronounce Korean syllable-final obstruents as released plosives, while Thai speakers almost never pronounce them as released plosives, yet they tend to pronounce the syllable-final ‘ㄷ’ as [n]. On the other hand, Chinese speakers completely eliminate the syllable-final consonants in their pronunciation, and Japanese speakers pronounce them with an addition of the vowel [u]. For this reaso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language-specific characteristics of syllable-final consonants pronunciation, and seeks a way to make use of them in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2020. 01. 30. 접수: 2020. 02. 18. 수정: 2020. 03. 03. 채택)

김선정

영국 런던대학교(SOAS)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계명대학교 인문국제학대학 글로벌한국어문화교육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개론(공저)』, 『대조언어학(공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교육론(공저)』, 『한국어 표현교육론(공저)』 등의 저서와 ‘한국어와 타 언어의 대조 및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E-mail: kimsj@kmu.ac.kr